

국내와 세계를 넘나드는 '월드스타' 배우나

“극한의 무술훈련 덕에 웬만한 액션 끄떡없죠”

미드 '센스 8' 마지막 촬영

사극 '킹덤' 주인공 발탁도

첫 사극도전 “매력적인 역할”

배우나(38·사진)가 '센스8'에 이어 '킹덤'으로 '월드스타' 행보를 이어간다. 두 작품 모두 세계적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로, 전 세계에 서비스된다. 연예계에서는 “배우나는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스타”라고 말한다.

배우나는 최근 '센스8'의 마지막 에피소드 촬영에 돌입했다.

시즌2까지 제작된 후 내년 2시간짜리 마지막 스페셜 에피소드를 내놓는 '센스8'은 지난 4일 크랭크인했다. 크랭크인에 앞서 배우나는 2일 독일 베를린에서 '센스8' 대본 리딩에 참석했고, 잠시 귀국해 영화 '마약왕' 마지막 촬영을 마친 뒤 다시 '센스8' 촬영을 위해 8일 출국했다.

앞선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센스8'은 촬영장소와 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있으며, 배우나는 앞으로 6~7주간 해외에서 촬영한다.

'센스8'은 '매트릭스' 시리즈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감독이자, 나란히 성전환을 통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신한 릴리-라나 위소스키 자매가 만드는 SF 대작 드라마다. 시즌1과 2가 세계 10여개국을 무대로 펼쳐졌고, 광대한 스케일의 독특하고 강렬한 이야기로 두터운 매니아층을 낳았다.

당연히 시즌3이 예상됐으나 막대한 제작비로 넷플릭스가 제작을 최종 포기하자 세계 각국에서 넷플릭스로 향의가 쏟아졌고 시즌3 제작 청원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넷플릭스는 2시간짜리 스페셜 에피소드를 제작해 '센스8' 팬들을 달래기로 했다. 스페셜 에피소드의 공개 시점은 내년 4월로 알려졌다.

배우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세계 각지에 흩어진 8명이 서로의 생각과 능력을 공유하는 '센스8'에는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이 출연하지만, 그중에서도 배우나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업가이자 싸움에 능한 '여전사' 캐릭터를 맡아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배우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센스8' 시즌3 제작이 무산됐을 때 정말 힘들었고 한달간은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을 정도로 이 작품을 사랑한



다”고 말했다.

그는 “극 중 내가 맡은 역할이 수많은 한계적 액션에 부딪히는 역할이라 매일 운동과 무술 훈련을 하면서 극한체험을 했다”며 “너무 힘들어 리듬머신 위에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이겨내며 시즌1과 2를 끝내고 나니 해냈다는 보람에 너무 뿌듯했다”고 밝혔다. 이어 “'센스8' 끝내고 나니 웬만한 액션은 힘들지 않았다”며 “다시 못 만날 캐릭터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비록 '센스8'은 끝나지만 세계 시청자와 배우나의 만남은 계속된다. 배우나는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한국 드라마 '킹덤'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센스8' 촬영 직후 11월 말부터 '킹덤'을 찍는다. '킹덤'은 '시그널' '사인'의 김은희 작가가 쓰는 판타지 사극으로, 조선시대 좀비가 출몰하는 독특한 이야기다. 김은희 작가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기획 단계부터 관심이 집중된 '킹덤'은 6부작으로 사전 제작돼 내년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드라마지만 영화 같은 스케일을 자랑한다.

데뷔 이래 사극을 한 번도 찍지 않았던 배우나는 이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한다. 도회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의 배우나는 '킹덤'이 사극이라는 점 때문에 몇달간 고심했지만, 좀비를 소재로 한 독특한 설정에 마음이 끌려 결국 러브콜에 응했다.

배우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지만 사극이 비주얼적으로 과연 나한테 어울릴까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국본이 너무 매력적이라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 그의 '킹덤' 출연은 스케줄상으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다. 처음에는 '센스8' 촬영과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제작진은 배우나를 잡기 위해 촬영일정을 뒤로 미뤘고, 결국 배우나는 '센스8'을 끝내자마자 '킹덤'에 합류하게 됐다.

소속사 셋별당엔터테인먼트는 “출연 제안은 영화 '터널'을 함께 한 김성훈 감독님으로부터 받았다”며 말을 아꼈으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넷플릭스 역시 배우나 캐스팅을 강력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센스8' 이전에도 할리우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와 '주피터 어센딩', 일본 영화 '공기인형'과 '린다리다리다' 등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자신만의 필모그라피를 형성해온 배우나의 이력에 주목하고 있다.

배우나의 '월드스타'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모델인 그는 지난 3일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하는 등 작품 촬영 사이사이 '셀리브리티'(Celebrity, 유명인사)로서도 세계 무대에서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말뉴스

‘택시운전사’ 부일영화제 3관왕

최우수 작품상·남우주연상·독자심사단상

1천200만 관객을 불러모은 올해 국내 개봉 최대 흥행작 '택시운전사'(장훈 감독)가 부일영화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택시운전사'는 13일 오후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6회 부일영화제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과 관객이 직접 선정하는 부일독자심사단상을 받아 3관왕에 올랐다.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서울 택시 기사가 독일에서 온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송강호가 택시 기사 '만섭'을,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이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역을 맡았다. 유해진·류준열 등이 출연했다.

주연 송강호는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1980년 5월, 어린 딸을 키우는 서울의 평범한 택시운전사가 광주에 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가슴을 울리는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감독상은 '아수라'의 김성수 감독에게 돌아갔다. 여우주연상은 '죽여주는 여자'의 윤여정, 남우조연상은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의 김희원, 여우조연상은 '군함도'의 김수안이 각각 받았다.

신인남자연기상은 '꿈의 제안'의 구교환, 신인여자연기상은 '박열'의 최희서가 각각 차지했다.

각본상은 '박열'의 황성규, 촬영상은 '악녀'의 박정훈, 음악상은 '꿈의 제안'의 플레시 플러드 달링스, 미술상은 '군함도'의 이후경에게 돌아갔다. 유현목 영화예술상에는 고(故)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부위원장님이 선정됐다. 고인을 대신해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부일영화상은 지난 1958년 출범한



배우 송강호



영화 '택시운전사' 한 장면.

국내 최초의 영화상이다.

◇ 수상자(작) ▲ 최우수 작품상 '택시운전사' ▲ 최우수감독상 김성수('아수라') ▲ 남우주연상 송강호('택시운전사') ▲ 여우주연상 윤여정('죽여주는 여자') ▲ 남우조연상 김희원('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 여우조연상 김수안('군함도') ▲ 신인감독상 이현주('연애담') ▲ 신인남자연기상 구교환('꿈의 제안') ▲ 신인여자연기상 최희서('박열') ▲ 각본상 황성규('박열') ▲ 촬영상 박정훈('악녀') ▲ 음악상 플레시 플러드 달링스('꿈의 제안') ▲ 미술상 이후경('군함도') ▲ 특별상 장훈('택시운전사') ▲ 유현목영화예술상 고(故) 김지석 /연말뉴스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살릴하는 남자들 (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장영실 (재) 50 UHD 한식 (재)	50 마녀의 법정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SBS 12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50 다큐 공감(재)	10 문화사색	55 닥터 365
2	50 101세의 프로젝트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0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재) 45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50 팔도밤상(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15 사이닝스타 45 꾸러기 식사교실	
4	00 4시 뉴스집중		15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사람 (재) 30 팔도밤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 산 (재) 30 VJ 특공대 (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별별머드리 (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7	00 KBS 뉴스7 35 한글날 특집 헬로우 한국어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3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55 별별머드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마녀의 법정	00 20세기 소년 소녀	00 사랑의 온도
11	10 월요기획	10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한편으로 정주행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이웃집 할스 (재) 50 생활의 발견	35 영상앨범 산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15 꼬마기사 마이크	20:40 다큐 오늘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미국 자동차 횡단 7500km -1부 동부 사람이 사는 밤>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20:50 세계테마기행 <아시아 최후의 정글 - 밀림의 제왕을 찾아서>
06:0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1:30 한국기행 <시선기행, 우리 정방 -1부 가을 익는 풍상>
06:2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매주 낙지비빔밥)	06:00 얼마 깨우리	21:50 EBS 다크프린트 <넵스> 제4부 - 신의 손짓, 0)
07:00 허준씨가 과학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두다다큐	22:45 얼마를 찾지마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3:35 까칠남녀
07:45 출동! 슈퍼힘 1~2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신다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8:00 덩동덩 유치원 1~2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15 로보카 폴리	24:30 세계의 드라마 (빅토리아 5부)
08:30 플라워링 하트	12:45 과학 다크 비욘드 (재)	17:45 호기심 소녀 도토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얼마를 찾지마(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09:00 몬스터	14:30 레이디 비그	19:00 로보 발명왕 라스티	
09:10 소피 루비	15:00 우주탐험가?	19:30 EBS 뉴스	
		19:55 다문화 교부 열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교

10월 16일 (음 8월 27일 丙子)

子	48년생 외형적인 기교보다 내부적인 효용 판단이 우선 되어야 한다. 60년생 모순이나 미비점이 보이거든 무시하지 말라. 72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이 요구된다. 84년생 노출시켜서 좋은 일을 전혀 없다. 행운의 숫자 : 33, 18	午	42년생 방심한다면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54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차차 쉬워질 것이다. 66년생 공들인 노력에 정비례해서 결과가 나타나리라. 78년생 소중한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다. 90년생 가타이 접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57, 90
丑	49년생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61년생 중박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 볼 일이다. 73년생 남은 좋지않은 정작 주인공은 실속이 없었다. 85년생 세분화되면서 점점 흥미를 더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94, 48	未	43년생 사세가 급하다고 불필요한 것까지 수용할 이유는 없다. 55년생 현실을 직시해야 정확한 판단이 선다. 67년생 기민하게 대처하라. 79년생 순간의 착각이 병패를 낳을 수 있다. 91년생 용기보다 지혜가 앞서야 할 판세다. 행운의 숫자 : 43, 61
寅	50년생 진퇴가 분명해야만 돌발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62년생 막연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느니라. 74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머지않아 해결 될 수이니 걱정하지 말고 임하라. 86년생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겠다. 행운의 숫자 : 97, 73	申	44년생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자신을 잘 해야 할 것이다. 56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떠밀려날 것임에 틀림없다. 68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에 놓여 있다. 80년생 성숙한 관계로 이끄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58, 74
卯	51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확신이 분명해야 흔들림이 없다. 63년생 세분화되면서 점점 복잡해진다. 75년생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심사숙고한 연후에 의사 표시하라. 87년생 허구한다면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4, 50	酉	45년생 현황에 맞게 조율하고 모색하라. 57년생 지금이야말로 이론보다는 경험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69년생 상당 시간 동안 거친 파동의 시기를 보낸 후에 조금씩 진정된다. 81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91, 12
辰	52년생 애초부터 대동소이하였던 바이니 구분할 것까지는 없다. 64년생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듣게 되어 당황할 수도 있다. 76년생 한 번 시작 되면 술술 풀려나올 것이니라. 88년생 구상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현실화 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70, 64	戌	46년생 절제 속에서만 건설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 58년생 주저한다면 실기하는 길로 이어질 것임에 변다. 70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용하는 자세가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82년생 정성을 다 하라. 행운의 숫자 : 54, 66
巳	53년생 열심히 해 놓으면 머지않아 요긴하게 쓰이리라. 65년생 정중동의 형태가 합리적임을 알아야 한다. 77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맞다. 89년생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29	亥	47년생 지나친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 있느니라. 59년생 상대가 심경의 변화를 보일 수도 있겠다. 71년생 순발력 있게 대응하여 나가는 기발한 발상이 필요한 때이다. 83년생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0, 6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